

U대회 '감동 실사' 준비는 끝났다

빈틈없는 프리젠테이션 제작 심혈 시민 질서의식 홍보, 가로환경 정비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개최 후보지 사전 점검을 위한 국제대학교스포츠포럼(FISU) 실사단의 광주 방문(5월1일~5일)이 9일 앞으로 임박하면서 광주시가 프리젠테이션(PT)과 환영 분위기 조성, 도시환경 정비, 교통·기초질서 의식 제고, 시민열의 확산 등 막바지 손발맞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빈틈 없는 프리젠테이션 준비= 스테판 버그 스웨덴 집행위원을 단장으로 한 6명의 FISU 실사단은 다음달 초 광주 방문 기간동안 광주시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프리젠테이션을 받는다. 짧은 방문일정을 고려하면 PT는 광주의 개최 역량을 한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여서 광주시는 수개월 전부터 PT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해의 유치활동을 마치고 20일 갖 귀국한 박광태 광주시장도 가장 먼저 실사단에 보여줄 PT부터 점검했다. 21일 서울 무역회관에서 열린 리허설에는 김윤석 경제부시장과 기획사인 LG 애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About 광주'라는 주제 아래 컴퓨터그래픽 등 IT 기술로 제작한 영상과 함께 광주시내 경관과 도로,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을 가로 3m, 세로 2m에 집적화해 축소 제작한 첨단 모형도가 선보였다.

광주시는 이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광주 개최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U대회 실사 준비의 '컨트롤 타워'

인 종합지원단(단장 최희만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성공적인 실사를 위해 매일 보고회를 갖고 실사 준비상황을 교차 점검하고 있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비롯 지역 대학, 교육청, 경찰청, 시체육회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유관기관지원단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질서의식 높이기=광주시는 실사를 전후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기초질서지킴이 분야별 태스크포스 6개팀을 가동, 공중 화장실 정비와 거리정소, 옥외광고물 정비, 불법 주차 단속 등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사 기간에는 자치구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법 시민 기초질서지킴이 자율실천 캠페인'을 집중 전개한다.

또 질서 있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실사단 방문 노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별정소반과 불법 광고물 이동순찰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실사단이 체류하는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불법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롯데마트~시청 앞 1.2km 구간을 불법 주차 없는 시범거리로 운영,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민 홍보전 및 가로환경 정비= 2013 U대회 광주 유치를 지원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홍보도 이어지고 있다.

1천여명의 대학생지원단은 지난 주부터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 등지에서 여행객과 광주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와 '유치기원 메시지 남기기' 등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광주시 주부명예기자단은 최근 경남 하동 화계장터와 생계사 등에서 현지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상대로 홍보전을 펼쳤으며, 광주시청 차량관리실 직원들도 19일 한평세계나비근충엑스포 행사장에서 U대회 광주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광주시 자원봉사자 600여명은 FISU 실사단에 대해 깨끗하고 화사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지난달부터 매수 수요일 빛고을로와 무진로 등 주요 관문로에 꽃잔디를 심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는 2013 하계U대회 실사단 광주 방문을 열흘 앞둔 21일 시청사 앞에 환영 꽃담을 조성하고, 'We love Universiade'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등 막바지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시청을 찾은 어린이들이 꽃담 앞에서 U대회 유치를 기원하며 환성을 지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지하철 1호선이 완전개통되면서 송정리역 열차이용객이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코레일 광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지하철 개통 이후 9일간 '송정리역 연계교통 개통 전·후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이용객은 1만8천789명으로, 개통 전에 비해 3천164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코레일 광주지사는 지하철 개통

광주지하철 1호선 완전개통 이후 송정리역 열차 이용객 20% 늘어

전·후 열차이용객과 영업수익 실적을 비교하기 위해 개통 전인 지난 3월28일부터 9일간 같은 조사를 진행했다.

열차종류별로는 무궁화호 열차가 1천568명으로 가장 많이 늘어

고, KTX와 새마을 이용객은 각각 1천411명과 185명 증가했다.

무궁화호 열차는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이 집중됐으며, KTX는 대부분의 시간대에서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수익도 늘어났다. 코레일 측은 "지하철 개통 후 2억8천518원의 수입을 올려, 개통 전에 비해 4천 215만원(17.3%) 가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백종찬 코레일 광주지사는 "지하철 개통에 따른 고객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골든뷰 오피스텔 분양

3.3㎡당 300만원대

5월 6일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OPEN!

1577-0733

재혼만 11년!

행복을 꿈꾸는 당신에게

527-3388

U대회 유치, 이것만은 지키자

무단횡단·과속운전 그만 선진 시민의식 보여주자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한 광주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다음달 초에는 국제대학교스포츠포럼(FISU) 실사단이 개최 후보지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기초·교통질서 등 준비태세는 미약하기만 하다. 지난해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무단횡단과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이 거리낌없이 행해지고 있다. 불법 광고물도 여전하다. 광주일보에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광주의 교통·기초질서 준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본다.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교통질서 준수 의식이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광주경찰이 단속한 교통질서 위반 사례를 보면 과속이 21만6천3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이 4만5천26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부 장명숙(여·40)씨는 요즘 차를 몰고 도로에 나서기가 무섭다. 최근 겪은 무서운 경험 때문이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직진 신호를 받고 막 출발할 무렵, 승용차가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한 것이다. 장씨는 급정거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한동안 가슴을 쓸어내리며 핸들을 잡지 못했다.

무단횡단, 과속·난폭 운행에 신호까지 예사로 무시하는 차량과 불법주행 오토바이들로 일부 운전자들은 핸들 잡기가 무섭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천889건으로, 사망자만 151명에 이른다.

교통사고 발생은 전년 8천1건에 비해 1.4%가 줄었지만, 사망자는 14.4%가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부상자 수가 전년에 비해 모두 0.2%~1.8% 감소한 점으로 미뤄 볼 때 광주만 '거꾸로' 간 셈이다. 이 때문에 광주는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 전국 최고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이어 읍유운전 1만3천32건·난폭운전 2천601건·무면허 2천601건·중앙선 1천8건 등 순이었다. 운전자들의 과속과 신호위반이 다반사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문화를 성숙시킬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은 결과 운전자의 교통질서 준수 의식이 미흡해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운전자가 주행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면 교통사고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앞으로 교통질서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광주 4·19기념회관 증축 관련단체 사무실 등 제공

그동안 사무실이 부족해 기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광주 4·19혁명기념회관이 증축된다.

광주시는 21일 "4·19혁명 기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광주시 동구 계림동 4·19혁명기념회관을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축 공간(338㎡)은 관련 단체들을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로 제공된다.

시는 시설설계가 완료되는 오는 7월 중 공사를 시작해 11월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신축된 광주 4·19혁명기념회관은 연면적 460㎡ 규모로 1층에는 영정봉안소와 전시관, 2층에는 관리사무실이 들어서 있으나 기념사업위원회 등의 사무실이 부족하고 회의실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문화수도 아이디어 찾기 시민 주도 토론회 열린다

내달 8·9·13일 '만민 공동회'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민 공동회는 기존 형식에서 탈피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발표자로서 나서며 주제도 직접 선택한다. 발표자들이 청중을 직접 초청한 뒤 상호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광주전남 행복발전소와 호남대학교 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은 다음달 8, 9, 13일 광주전남 행복발전소 세미나실에서 '아시아 문화도시 만민 공동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문화수도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